

칭하이 무상사 지혜어록

“나는 불교나 기독교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나는 진리에 속해 있으며 진리를 전합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불교나 기독교, 도교 또는 여러분이 원하는 그 무엇이든 불러도 좋습니다. 나는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얻음으로써 모든 것을 얻을 것입니다. 완전한 만족과 지상 및 천상의 갈망을 모두 실현하는 것은 신의 왕국 - 우리의 영원한 조화와 영원한 지혜, 그리고 전지전능한 힘의 내적인 깨달음 - 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얻지 않고서는, 아무리 많은 부와 권력과 지위를 누릴지라도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르침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든 성심껏 하라는 것입니다. 책임을 다하며 매일 명상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세상에 봉사하기 위해 더 많은 지식과 지혜와 평화를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면에 여러분 자신의 선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육신에 신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부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소개말

전 시대에 걸쳐 아주 드물게 몇 분이 인류의 영적 고양이라는 유일한 목적을 가지고 인류를 찾아왔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방문객 중의 한 분이었으며, 석가모니 부처와 모하메드도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 세 분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다른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공개적으로 가르침을 주어 다소 알려진 분들도 있고, 전혀 알려지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존재들은 각기 다른 시대에, 다른 나라에서, 다른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분들은 스승, 아바타, 선지식, 구세주, 메시아, 성모, 메신저, 구루, 살아 있는 성인 등과 같은 이름으로 불려 왔습니다. 그분들은 우리에게 깨달음, 구원, 자아실현, 해탈, 깨우침을 주려고 왔습니다. 이 말들은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과거의 모든 성인들이 그랬듯이 동일한 영적 위대함과 도덕적 순결성 그리고 인류를 고양할 힘을 가지고 똑같은 신의 근원으로부터 온 이 방문객들은,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있지만 그들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들 중의 한 분이 바로 칭하이 무상사(The Supreme Master Ching Hai)입니다.

칭하이 스승님은 살아 있는 성인으로 널리 알려진 아주 보기 드문 분입니다. 스승님은 여성입니다. 그러나 불교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여자는 부처가 될 수 없다는 근거 없는 통념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요. 스승님은 동양인입니다. 그런데 많은 서구인들은 구세주가 그들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세계 각처에서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가

지고 스승님을 알게 되어 스승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우리들은 스승님이 누구이며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를 알려면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신실함과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과 주의가 요구될 뿐 다른 것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생계비를 벌고 물질적 욕구를 채우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안락한 생활을 위해 일합니다. 그러다 시간이 나면 정치나 스포츠, TV, 최신 스캔들 같은 것에 신경을 씁니다. 신과 직접 내면으로 만나는 사랑의 힘을 체험한 우리는 이보다 더 나은 삶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 좋은 소식이 더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생의 온갖 몸부림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내면으로 들어가 조용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단숨에 천국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열의가 지나쳐서 여러분의 이성적인 마음을 상하게 하는 실언을 했다면 용서하십시오. 우리가 보고 알면서도 가만히 있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칭하이 무상사의 제자들이며 관음법문의 동료수행자인 우리는, 우리 스승님을 통하건 다른 스승을 통하건, 여러분이 직접 신성의 실현을 체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소개책을 드립니다.

칭하이 스승님은 우리에게 명상수행과 내면으로의 목상,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이생에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내면에 있는 신의 존재를 깨달아야 한다고 설명하십니다. 스승님은 깨달음이란 비밀스러운 것도, 도달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며, 사회를 떠나 은거하는 사람만이 성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활하면서 우리 내면에 있는 신의 존재를 깨달도록 하는 것입니다. 스승님은 이

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잊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누군가가 와서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며, 왜 우리가 진리를 찾아야 하는지, 왜 우리가 명상수행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신)이나 부처 또는 우주에서 최고의 힘이라고 생각하는 누군가를 왜 믿어야 하는지를 다시 상기시켜 줘야 합니다.”

스승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당신을 따르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스승님은 자신의 깨달음을 본보기로 삼아 다른 사람들도 궁극적인 해탈을 얻을 수 있도록 도울 뿐입니다.

이 책자는 칭하이 무상사의 가르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실린 칭하이 스승님의 강연, 해설, 인용구절 등은 스승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녹음하여 기록하고, 때로는 다른 나라 언어로 출판하기 위해 번역해서 편집한 것임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비디오테이프나 카세트테이프를 보고 듣기를 권합니다. 그러면 문자화된 것보다는 훨씬 더 생생하게 스승님의 존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가장 완전한 체험은 스승님을 직접 뵈는 것입니다.

칭하이 스승님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머니이시며,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버지이시며,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애인이시기도 합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친구는 됩니다. 스승님은 이곳에 베풀기 위해 오셨지, 받으러 오신 게 아닙니다. 스승님은 당신의 가르침과 도움 그리고 입문에 대한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으십니다. 스승님이 가져가시는 것은 단지 여러분의 고통과 슬픔 그리고 아픔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를 간절히 원할 때에만 그렇습니다!